

내 말이 너희 안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생명 공동체



창립 51주년 기념호

2019년 10월 27일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건강의 어려움이 온적이 있습니다. 콜레스트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정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곧바로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한 시간씩 운동을 하고는 교회로 다시 와서 그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피트니스 센터 내에 있는 스팀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팀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몇몇 분의 한국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분들 역시 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대화는 오직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얼바인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어떤 한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 한의원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의사 역시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맥을 하는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나도 그곳에 가보아야 하겠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한의사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저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가게를 찾습니다.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합니다. 좋은 가게에 대한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사람에 대한 평판도 소리소문 없이 쉽게 퍼져 나갑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좋다거나 노래를 잘해서 좋다거나 집안이 좋아서 좋다거나 그런사람입니다.

이유가 붙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날 그 이유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떠날 가망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가 좋아서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딱히 꼬집어 말 한마디 할 순 없어도 싫은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말 한 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한참을 떠들어도 시끄럽다 느껴지지 않는 그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느낌이 좋은 사람입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좋은 사람을 멀리하거나 싫어할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역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덴버안에서 한인기독교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교회’라는 말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즐거운 곳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창립 51 주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마 6:12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내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신은 용서받기를 구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를 보면 자신은 주인에게 모든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 자신의 동료는 용서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된다는 것이고,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용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용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하고, 말씀의 눈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쳐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한 가지를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거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직분도 맡으며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만약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던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또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도 못른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이 간구를 가르치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 장 36-39 절)

51 주년을 맞이한 한인기독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때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새로운 형갱과 낡은 형갱,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대조이자 암시적 비호환성(非互換性)입니다. 새로운 형갱과 낡은 형갱,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강제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는 둘 다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누구나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명제가 사회적으로 떠들썩해진 것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것과 옛 것을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옛 사람들은 새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새 사람들 역시 옛 것의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복음(福音)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방식대로 스스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선 낡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옛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은 어찌 보면 철없게 보였을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아이러니(irony)에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선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하는 사실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갱과 낡은 형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움이 옛 것을 계승하여 새로운 실현과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삶, 새로움을 상징하는 “새 언약” (διαθήκη καινή)은 “옛 언약”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옛 것의 “공존”과 “조화”로 “실현”과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나 “개혁”은 “옛 모습” 혹은 “죄의 모습”을 버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옛 모습을 버린다는 표현이 여태껏 이어진 전통(tradition)을 깰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신앙 구전(tradition)을 “계승”(繼承)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 교회들이 아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 세와 2 세의 “갈등” 때문은 아닐까요? 옛 것과 새 것의 강제적 결합 때문은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 세의 소명과 2 세의 소명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 수고하여 이루어 놓 1 세들의 신앙 터전은 2 세들이 이루어 나가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2 세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융통성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움이 만약 1 세들이 이루어온 신앙 터전 위에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강요가 아닌 설득, 독촉이 아닌 인내, 구속이 아닌 자유가 허락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공존, 조화, 및 계승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인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God Bless!



2019년 4월 1일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날인 3월 31일 주일 저녁에 남편인 박선목 전도사와 앤드류 목사님과 함께 LA 에 있는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한 황진수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Hello Pastor Ahnna, does Pastor Paul have a history of stroke?” “안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박선목 전도사님이 예전에 뇌출혈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이렇게 밤 10시경에 온 믿기 힘든 전화 한 통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38주 임신 중이었던 저는 둘째 출산과 산후조리의 시간을 앞두고 여름사역들을 앞당겨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초기 기획단계를 마무리하며 “이제 좀 쉬어가자”란 작은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36살 된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가 LA 까지 가서 난생처음으로 겪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남편의 담당 의사와 처음 나눈 통화내용이 기억됩니다. 임신 38주 차였던 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으니 어떻게든 남편이 콜로라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존 있었던 고혈압과 연관된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킨 상태라 절대안정을 취할 때까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3박 4일간의 선교컨퍼런스 여행은 5주간의 길고 긴 병원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힘겹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하루하루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했던 것은 뇌졸중이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저는 즉시 송병일 담임 목사님과 신앙의 친구들에게 “응급기도 부탁”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담은 문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져 전 세계 곳곳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가장 힘겨운 순간마다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포근한 이불처럼 저를 덮고 있는 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교인분들께서 일주일에 2-3 번씩 정성 어린 식사를 배달해 주셨고 친구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 떼쓰는 첫째 딸 성주를 시간 되는데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 친구들이 남편을 방문해 주셨고 콜로라도에서 일부러 남편을 방문하러 가 주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친한친구와 교인분이 함께 GoFundMe 이란 모금을 시작해 주시고 주변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나 단체를 대표하여 후원금을 보내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4 월 첫 주에 입원해 있던 곳이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병원이라 상상하기 힘든 빛이 생겼습니다. 아직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밖에 편지로, 위로의 말로, 병문안으로, 곁에 머물러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뭐길래, 세상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나..? 그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은 여러모로 우리를 연단 시켜줍니다. 저 역시 이번에 남편의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계획하지만, 하루하루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픔을 계기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거룩한 사랑의 사역이 어떤건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아파지고 나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LA 에 입원해 있던 5 주의 시간을 돌아보면 꿈만 같습니다. 남편이 가족과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고 오른쪽 눈도 잠시나마 실명했었습니다. 기억력과 언어능력을 잃어 가족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안정을 차린 후부터는 살기위해 물을 마시는 훈련, 음식을 삼키는 훈련부터 해야 했고 고통스러운 걷는 훈련, 말하는 훈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곁에 없는 동안 배 속의 아기를 위해 없는 힘도 내야 했습니다. 첫째딸은 이해할 수 없어도 뭔가 달라진 아빠의 모습에 적응해야 했고 4 월 17 일 날 태어난 둘째 아이는 아직 건강한 모습의 아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런 현실보다 더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을 겪지 않고 두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쓰러진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3 세계나 시골에서 쓰러지지 않고 LA 대도시에서 쓰러져서 훌륭한 병원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축복입니다. 생존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출혈성 뇌졸중을 겪고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음이 은혜이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1-2 년 안에 90%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들이 말하니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쓰러졌을 때 함께 일어나 기도해줄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이 은혜이고 매주 나아지는 모습을 크게 격려해주는 교회가 있음이 은혜입니다.

지난 5 개월간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의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올해의 아픔과, 축복과, 회복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되새기며 더욱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아내, 엄마, 그리고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 박선목 전도사는 항상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A 컨퍼런스를 참석한 이유도 선교와 사역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 박선목 전도사가 온전히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 84 :13).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되신 모든 분께 큰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욘 23 : 10)

나를 살리신 하나님	박선목 전도사
------------	---------



2019 년 4 월 1 일은 저에게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스트로크가 있기 전에도 한두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초등학교 1 학년 때 1 톤짜리 트럭이 60km 로 달려와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 대 때 필리핀에서 댕기모기에 물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병원에 1 - 2 주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5 주간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첫 일주일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몇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한 주간 제 병간호하신 것과 방문한 사람들의 얼굴들, 그 정도입니다. 저의 생존율이 50%였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 주간 장인어른이 병간호하시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장면은 기억에 남지 않아 다행인 거 같습니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기억이 남지 않아 다행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그 정도 입니다. 2 주차 재활병원으로 옮겼을 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하셨구나.” 그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재활 훈련할 때만 간간히 워커에 의존한 채 걸어야만 했고 그것도 얼마 걸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성경 한 장 읽기 힘들었지만, 마가복음 14 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나병환자 시몬의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며 시몬과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스트로크로 쓰러진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일주일 전에 할 일이 많으셨겠지만, 그 일주일의 하루를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신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플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스트로크를 겪으면서 제가 받은 메시지 입니다. 아픔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 장 10 절)



이 말씀은 내 인생의 힘이요, 이제까지 나를 붙들어 준 귀한 말씀이다.

중풍을 2 번이나 겪고 난 후 등이 마치 찬물로 끼얹는 듯한 추운 통증으로 6 개월 넘게 고생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극심한 추위의 고통으로 인해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다. "목사님, 등이 너무 추워요... 기도해주세요."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까지도 마치 뜨거운 재킷을 입혀준 것처럼 등이 따뜻해졌다.

목사님을 통한 기도 응답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큰 딸이 백일 된 조카딸 집에 너무나 가보고 싶어 했는데 감기로 인해 꿈쩍도 못 하고 있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한 후 바로 감기가 치유되는 은혜로운 기도 응답도 체험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덴버

맑고 깨끗한 하늘
 목화송이 피어나듯 피어나는 뭉게구름들
 하늘을 치솟는 나무들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들
 깨끗한 도시 덴버
 저는 덴버를 가나안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들 끼리 부딪치며
 속삭이는 나무잎들 이러한 자연을 보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 : 14) 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령이 같은 너”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레 지령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령이는 흙 속에 사는 가장 더럽고 썩는 냄새가 나는 벌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보이는 모양새. 머리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속으로만 기어 다니는 벌레. 햇빛 비취는 땅 위로 올라오면 강렬한 빛과 열에 힘없이 말라 죽어가는 벌레입니다.

창세기 1 : 26 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 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 : 7)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 : 21)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으로 귀한 존재를 만드신 사람 야곱에게 “지령이 같은 너”라고 부르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영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만과 지령이와 같이 보기도 흉한 추악한 냄새가 나는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죄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 버릴 수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에베소서 2 : 3)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음도, 회개도, 감사도, 사랑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 : 19, 22)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 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 삶에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 : 16) 라고 그 유명한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도 감동하시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심... 마태복음 16 : 17).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인간 그대로였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변화되어 중생의 역사와 선교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 : 1-4) 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 : 3-5 절에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에 오르는 정도의 물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목까지 차 있는 깊은 물 속에서는 내 방법과 방향으로 갈 수 없듯이, 얕은 물가에서는 나의 의지대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물에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음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나”라는 자아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3 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느 날은 말씀 묵상과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한 적도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적도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기본적 사랑이 있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준엄하신 말씀에 다시 뒤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렁이 같은 인간들로부터 멸시, 천대와 중한 고통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 : 5-6)

오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 갈고리 같은 채찍으로 살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그 고통, 옆구리에 긴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통,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멸시 천대 조롱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성경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돈독(敦篤)해지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받아 구원 받았다고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지도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모자람을 채워 주시며 소원하는 나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 : 1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 : 4-7)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하던 이 사탄은 (마 4 : 11)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며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 : 8)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 : 22)

이러한 영적 존재인 마귀를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 : 41)

에베소서 6 : 11-18 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 : 4, 6, 7, 10)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가 군기를 높이 날리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 : 12-13)

은혜 아니었
 살아갈 수가 없네
 고령이었는데 다 주의 것이니
 작은 고난에 지레도
 주께 꽃인 나의 모든 삶
 버리고 전에게
 감사하네

오직 예수뿐이네 



소망

정은영 집사

어둠에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 빛을 노래할 수 있고...
 가파른 절벽에 서 있지만...
 주님이 내민 손을 보아네...
 사나운 파도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이니 담대할 수 있으며...
 내 머리 눈처럼 희어지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젊지 않아도...
 소녀처럼 명랑할 수 있음...
 난 영원히 주님께 어린신부라네 ~
 사막길 걸어가도 두렵지 않음...
 내안에 기쁨에 샘물에서 길어올린 생명에 청정수 때문이지.
 가꿈은 나에 어리석음으로
 의심하며 엎드려 절망할때도...
 소망에 등불 밝히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

오늘도 아들은 기저귀 가방을 메고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온다.

“엄마 아기 좀 봐줘” 하고는 돌아선다.

“어디 가는데?”

“낚시하러.”

“그래, 다녀와.”

토요일 온종일 아기를 보며 찬양과 설교 말씀 들으며 아들이 가지고 갈 반찬을 만든다. 몇 가지의 고기 반찬과 밀반찬, 등등...

몇 년째 A 는 몹쓸 병에 시달리며 정신을 못 차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한다.

어두워진 후에야 아들이 돌아왔다.

“고기 많이 잡아 왔니?”

“아니.”

“하루 종일 고기도 못 잡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프지? 밥 먹어.”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잡으면 또 놓아주고 그들도 없는 퇴약별에서 고생하다 왔네.”

“엄마 집에서 잠이나 폭 자고 가지” 가슴이 아프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둠의 영에 짓눌려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든단다.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 왔단다.

한참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젊은 나이에 자기의 힘으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 잘살아 보겠노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생각 없이 물가에 앉았다 오는 아들은 “엄마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며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아~ 하나님 어떻게요, 저 아들을 어떻게요... 영이 피폐해져 가며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킨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가서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가슴이 미어지게 눈물만 솟구친다. “아버지 어떡해요? 제가 할 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도와 주세요.” 오열이 터진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냥 통곡하며 울어버린다. 울다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울다가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울다가 (주님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육신의 힘으로나 생각으로나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나이까?

얼마를 울며 기도하고 잠잠하며 기다렸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듯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보일 듯 말듯 가느다란 줄에 이끌리어 지친 모습으로 아들이 기어서 끌려가고 있었다. 가슴이 조여온다. 소리 없이 눈물이 또 흐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온다. “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고난을 겪게 하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었노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같이 가고 계심이 느껴졌다.

“아! 그것이었군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장이 내 가슴에 훅 들어왔다) 머리가 뺑 뚱리는 것 같았다. 주위가 환하게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프신 사랑. 나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들의 아픔과 함께하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세상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품어 주시는 끝이 없으신 사랑....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높이신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좋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힘들고 불행하게 생각하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속상해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말씀을 적용(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진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순간 순간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 때문에 용서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또한 낮아 질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속에 살아 있는 한 나는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이다.

아들은 지금 행복하다. 어둡고 힘들었던 터널을 지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감사하며 예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한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보람
보여 주시기 위해

인: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직접
이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로서
나로 인해

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텐데

독: 독사의 자식들이라 비난 받던 바리새이들처럼

교: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나의 매일 매일의 삶을

회: 회개하며 오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구한다.



한: 한숨만 푹푹 나온다구요?

인: 인생살이 힘이 든다구요?

기: 기가 막히는 일만 생긴다구요?

독: 독특한 내 성격이 문제라구요?

교: 교회에 와 보세요

회: 회복 될거예요. 한인기독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교회니까요.

* * *

한: 한걸음, 한걸음씩

인: 인도해 주시는 주님

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와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독: 독불장군 처럼 혼자만 나아가기 보다는

교: 교회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덕을 세우며

회: 회개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딸이 살고 있는 시카고를 다녀왔다. 그곳은 내가 사십여 년 전 처음으로 미국땅에 발을 딛고 이민생활을 시작했던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시카고에 갈 때마다 이민 초기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우정을 나눈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한 친구의 주선으로 오래전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생활을 했던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바쁜 일로 모임에 잘 나오지 못했던 한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을 선 보이며 호들갑스레 인사를 한다.

“어머! 하나도 안 변했네요. 얼굴에 주름도 없고, 살도 안 찌고, 옛모습 그대로이시네요.” 착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귀에 듣기 좋은 인사말이다.

“아이구... 원, 별말씀을 다 하시네요. 옛말에 결혼 전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주고, 결혼 후의 얼굴은 남편이 만들어 준다는데 모두들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남편들은 애처가를 둔 것이 확실해요. 모두들 건강미가 넘치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친구들한테 아부 끼 있는 좋은 말로 인사를 했다.

참으로 오랫동안 사귀어 온 허물없는 친구들이 반가웠고 우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쏟아 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듯,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들과 웃음소리... 그래서 옛 친구들은 좋은 것인가 보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는 탓인지 대화의 초점이 우리가 더 늙은 후에 살아가야 할 대책은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사로 이어졌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은 무엇이고, 살을 빼는

데는 어떤 운동이 좋고, 또 어떤 화장품이 기가 막히게 좋으며, 요즘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과 하다못해 안경 스타일 또 명품 핸드백 종류... 그들은 참으로 유행의 첨단을 걷는 여성들처럼



아는 것도 많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보다. 허긴 여자가 아름다울 때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떻게 하여야 나이와 함께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고, 또 멋있는 고급옷으로, 그리고 이름난 멋진 핸드백으로 분위기에 맞는 세련된 멋을 창출한다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은 최고로 표현되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것도 여성으로서 갖고 싶은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라. 하지만 그것이 전부 아닐 것이다. 어떤이가 말하길 “여자의 참된 아름다움이란 감각적인 것이기보다는 감동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녀의 인격 속에서 가슴이나 영혼에 와 닿는 진실함이 나타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여성잡지에서는 “자신감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Confidence is the Ultimate Beauty**)라는 광고의 글을 읽기도 했다.

지난 5 월달에 송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 그때 인용하셨던 베드로전서 3 : 3-4 절 말씀이 자꾸만 생각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을 향한 이 말씀은 나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의 없어지지 않을 불멸의 장식으로 가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기에 내 가슴에 와 닿는다.

목사님께서서는 아내는 외모보다 마음을 먼저 단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인데, 성급하고 거칠고 짜증내는 것의 반대되는 것으로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한 온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다. 성령이 주시는 온유는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인격으로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성품, 그리고 행동을 모두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온유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높아진다고 하셨다. 우리 인격의 가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때문에 아내는 마음부터 가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나는 부끄럽기만 하다. 지금까지 내 속사람을 얼마나 온유하고 정숙한 사람으로 단장하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았는지, 내 양심에 찢린다. 가슴 깊은 곳에서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그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며 살고 싶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과, 몸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속사람이 경건하게 되는 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날이 갈수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단단히 결속되어있는 삶을 살아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한 여자로서, 인격의 가치를 높이는 아름다운 여자로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드린다.

“주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자로서 살게 하소서!”

사랑의 겨자씨 바자회

다바오 목장

저희 다바오 목장은 필리핀의 최용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김봉규 목자와 김복실 목녀를 비롯하여 교사로서 김경재 장로님, 그리고 몇 가정의 목원들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토)에 있었던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을 위해 그 전날 몇 명의 목원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었고, 한 목원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호박죽, 무장아찌, 오징어채 무침, 액세서리/인형, 등을 판매하였고, 순 수입금으로 \$1,000 불을 마련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느 형제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원들의 화기애애와 더불어 바자회날에는 대다수의 목원들이 수고와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우리 목원들의 도움과 희생이 없이는 이 놀라운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겨자씨 기금마련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신 16 : 16)

만군의 주님,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저는 2018년 12월 18일 척추 수술 (꼬리뼈부터 위로 5개 교체)를 하고 15일간의 병원 생활과 3개월간 물리치료 과정만 마치고 터키와 그리스 순례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불안하며 혹시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새벽 기도와 약 복용할 때마다 기도하였으며 여행자 보험을 들까? 아주 여행지를 바꿀까? 등 많은 기도 끝에... 강행하기로 하며 하루에 4시간씩 혹은 더 많이 걸을 수 있을까? 덴버에서 독일의 후랑크후르트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은 견딜 수 있을까? 이스라엘 순례 길과 다르게 이번 순례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늘 기도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 backpack도 메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허리와 부어오른 발목을 쓰다듬으며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의사는 10파운드 넘는 물건은 들지도 말고 허리를 구부리지도 말며 걸을 때는 사관생도의 걸음걸이로 고개를 정면으로 들고 걸으며 등뼈를 돌리거나 앉은 자세도 바르게 하며 한 시간 앉아 있으면 잠시 15분 서 있으라고 하는 엄한 주의사항을 지키게 하는 등 조심하여 다녀오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2019년 4월 23일 여행길에 올랐다. 첫 번째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는 도시국가의 대표된 곳으로 아크로는 높다란 뜻과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으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다. 즉,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운 도시를 말한다. 아테네나 스파타 등 도시국가들이 언덕에 세워져 아래를 내려다보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언덕 위에 산 것이 아니다.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신전이 언덕 위에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면 중에 삼면은 절벽에 가까운 바위 언덕이었으며, 한 면만 구불구불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테네는 대부분 평지인데 도시의 한가운데 150m 높이의 높은 언덕이 있고 그곳에 아크로폴리스가 건설된 것이다. 시민들은 평평한 곳에 마을을 형성하고 사면 모두에서 신전을 올려다 볼 수 있게 건설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신전을 바라보며 생활하였다. 물론 전쟁에서도 방어하기에 편리한 조건이 절벽위에 있으므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군인, 관리인, 사제들이 살았다. 단, 중요한 행사는 아크로폴리스에서 행하여졌으며 전쟁이 나면 모든 시민이 그곳으로 들어가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BC 6세기에 세워졌으며 아테네는 스파타와 가장 강력한 국가 도시국가였다. 아테네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인 반면 스파타의 정신력의 극치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명사가 되었다. 아테네는 예술, 학문, 철학, 문학 등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을 만들어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들이 마음껏 제자를 키우며 학문과 역사의 거장들을 배출해 냈다. 6세기 평민 세력의 등장과 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개혁은 현대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되며 유럽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특히 사도바울은 아테네에 입성하여 복음의

햇물로 그리스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다. 고린도 박물관의 야외 박물관과 실내박물관이 있으며, 야외 박물관은 모조품이 진열되어 있고, 실내 박물관에는 보안장치도 잘되어 있어 진귀품만 진열되어 있으며, 고린도 신석기 시대의 토기부터 청동기 투구 청동거울 등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의 다른 황제들의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데, 특징으로는 중요 부분들이 선명하고 실물과 같은 크기로 섬세하게 되어있다.

디오니소스의 머리가 새겨진 모자이크 바닥은 전시품 중에 명품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색상과 기교스런 모양을 띠고 있다. 고대 로마의 전성기 유적과 유물들의 찬란한 문화는 그 옛날 2~5 세기의 유물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회당입구의 정교한 조각물들은 회당에서 토론하는, 공론화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에 충분하였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고린도 운하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좁은 땅을 파서(길이 10 mile, 넓이 4 mile, 높이 90m)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동서로 뚫린 운하는 길이 6343m 이다. 운하의 폭은 25m 이며 수면에서 다리까지 60~80m 정도이다. 운하의 수심은 8~10m 이고 이 운하를 이용하면 로마와 그리스 사이 뱃길을 무려 200 마일이나 가깝게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위험한 뱃길에서 풍랑과 해적들의 약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이로움이 있었다.

여러 황제가 운하를 파기위해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네로황제가 6 천 명의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에서 고린도로 이주시켰고 이들은 사도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황제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운하는 19 세기에 완성되었으며 1881~1893년까지 12 년에 걸친 대 역사로 완성되어 문명의 혜택은 우리에게 돌아왔다.

파르테논 신전은 BC 447~438 년까지 약 10 년간에 세워진 신전으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전쟁의 신인 아테나를 두고 아테나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를 놓고 경합하였으며 결국 아테나로 결정하였다. 작은 도시 국가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한 전쟁의 신인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며 신전의 길이는, 길이 70m, 높이 10.45m, 폭 31m 에 46 개의 기둥으로 세워졌으며 세계 문화유산 제 1 호로 선정된 세계 역사의 중심지로 아테네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며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또 지금도 보수하고 있는 중이며 아테네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동과 물자를 공급하며 건축에 공을 들이는 문화유산이기에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이를 통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럽국가의 건설과 유럽문화의 위대함을 두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셨다.





이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이처럼 다정히
주님 손 잡고
천국 오솔길 걸으며...

난 묻겠지요
왜 그렇게 참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라고

이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슬프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나의 삶에 감사함을 고백하겠지요
함께 살아온...
가족... 친구 ...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주어졌던 상황들까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모든 순간에서 주님은 내 손 잡고
있었음으로...
이제는 알았노라며....



60년전에 잡은 손은
용기와 열정으로 채워진
유동열 장로님의 손, 그
손을 잡고 덴버까지
왔지요.

당나귀 타고 그랜드
캐년을 내려 갔다가 올라올 젊음과 용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음
꿈과 용기는 흔적도 없이 다 가 버리고
60년이란 세월이 6개월 같이 빨리도
지나갔고 꿈을 꾸다 깬것 같이 모든것이
희미하게 구름따라 바람따라 지나가는군요.

어쩌다 보니 새벽을 지나 석양길에 와 서
있네요. 허리가 아픈 나는 장로님의 손을 꼭
잡고 의지하고 오손도손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 하며 넘어질까 조심 조심 또 조심,
기우뚱 기우뚱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장로님의 손과 내 손을 꼭 잡아 주시는 손,
구원의 손, 예수님의 손 이였어요.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갈
고향집을 향해 따라 갑니다.

한인기독교회의 온성도님, 믿음으로
하나되고 사랑의 손, 손에 손을 꼭 잡고
기도와 찬송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71:9 절)

여행을 좋아한다. 일상을 탈출할 수 있어서만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좋다. 또 다가올 경험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하는 것도 참 즐겁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그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그 이후 여행지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덤이다. 그래서 여행은 손해 볼 것이 없어서 좋다. 밀려봐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보너스 투성이다.

믿음의 생활은 여행과 같다고 생각해왔다. 어차피 출장 나온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게 하고 확실하는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 이미 본전은 챙겼다. 받아야 할 복은 다 받았다. 예수님만으로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운 것이다. 이 후에 살면서 받는 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덤이다. 주시는 대로 사양 없이 받는다. 받은 복을 나를 위해 충실히 누리고 즐길 뿐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라고 엮어주신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나누는가를 고민하면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런데 늘 충분히 받지 못했고,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문제이지만 ...

십여 년 전 마태복음서 7 : 21 - 23 말씀이 문득 크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비록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여도 안 될수 있다고 하신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는 나팔 불고 오신다니 다행이지만, 만약 처음 오셨던 것처럼 조용히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알아볼까? 심지어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문자 그대로 헛갈렸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꽤 깊게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C.S Lewis 님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책을 이달의 장서로 소개 받았다.



은혜였다. 하룻밤에 단숨에 읽고, 두 달에 걸쳐서 자세히 읽었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소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때의 감동과 뜨거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많은 자세한 부분들은 도도히 흐르는 기억의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 버렸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참 좋은 책이라는 확신이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사회적 도덕성과 율법,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타내어야 할 모습, 성적 도덕성과 결혼의 의미, 원죄와 용서, 자비와 소망과 믿음, 삼위일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즐겁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자들의 주장이 1 + 1 = 3 이라는 것보다 더 허망한 주장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다. 예수님은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도 하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 허경영도 이런 허경영이 없다. 아니, 허경영보다 몇 배 더 열토당토않은 엉뚱한 주장을 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거나 좋아한다면 다른 사소한 것을 못 믿어 해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큰 소리로 내뱉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내게 이처럼 간단하지만 엄중한 여러 가지의 기독교 원리를 깨닫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이민 올 때, 기를 쓰면서 가져온 정치권의 빨간 기본영어,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 1, 송성문의 성문 종합영어와 같은 참고서들과 더불어 이 책은 내 책장에 늘 꽂혀있었다. 나머지 책들은 이제 다 처분을 하였지만, 이 책만큼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성경과 더불어 평생 지니고 싶다.

우리 집 아이들이 10 학년 후 여름방학이 되면 빌립보서 2 장과 더불어 이 책을 읽도록 권하였다. 학교에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나를 논리 있는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았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사과의 틀을 넓히는 에세이의 좋은 교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단계 책인 Dallas Willard 목사님의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와 더불어서

한글로는 "순전한 기독교"로 번역되었다. 참으로 훌륭히 번역되어서 번역체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오랜 기도 끝에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번역하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히 그리고 쉽게 번역하셨을까? C.S Lewis 전문가이신 두 번역자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싶다.

아래는 남가주 새누리 교회 웹사이트에 이 책에 대한 서평 중 일부를 옮긴다. (google: 순전한 기독교 남가주 새누리)

타임지(Time)가 "의심할 여지없이 20 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자 철학자였던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이자 아마도 유일한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 60 이 넘은 긴 세월 동안 신앙을 갖고 살아 오면서 뒤돌아보는 나의 삶의 여정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유년기에는 순수한 어린아이였기에 늘 사랑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냥 기쁘기만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던 교회당, 성장하여 학창 시절에 우리의 사랑방은 늘 교회였기에 모이면 즐겁고 마냥 마음이 부풀었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였다.

한참 열정 많은 나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더 열심히, 더 가까이 주님께 대해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가는 나의 신앙생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가슴으로 뛰는 열정적인 청년부 서클활동, 결국 두 친구는 수녀가 되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고귀한 여정의 길을 택하여 갔지만....

세상의 문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사랑이 보이지 않고 "나" "내"가 보일 뿐. 고집과 세상의 안일함으로 습관화된 신앙인이 되어 적당히 아주 적당히 주님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사랑의 말씀과 시련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주님 곁에 나를 있게 하셨다. 목숨이 끊어질 만큼 너무 아픈 시련에 이모의 냉정한 권유로 보따리 하나 들고 눈물에 눈이 멀어 휘청거리며 기어 기어 언덕을 올라갔던 "오산리 기도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 주님도 늘 기도하셨고, 피땀 흘리시기도 하셨고, 외로움의 고통과 고뇌가 너무나 많이도 힘들어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나의 아픔이 위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에 살얼음판을 걸듯 조심스레 한발 한발 조심스레 걸어왔으나 어려운 역경에서도 기적과 같은 여러가지일들.... 내 손 잡고 함께 오신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말씀이,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닦아가길 원한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고 싶다. 욕망이 아닌 사명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성숙 되어가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풀리지 않은 주님께 대한 나의 반항기가 담긴 의문이 있다. 늘 기도하고 질문하나 부족한 나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외진 환경에 목자들이 외면하고 가버린 곳. 목자 없는 양들은 어찌하실까? 먼 훗날 이러한 양들을 모른다고 하실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헤매게 하실까? 늘 마음은 안타깝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숙제가 되어 버린 그곳이다. 많은 목사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말씀이 있는 풍요로운 덴버 도시, 이 모든 것이 가까이 있기에 행복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늘 설레이며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의지와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여정의 끝날까지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원하는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한발 한발 내디디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어릴 적 저의 가정은 유교 집안으로 일 년에 제사가 14 번이나 있어 늘 제사 음식이 떠나질 아니하였고, 두세 달에 한 번씩 무당이 와서 굿을 했으며, 부모님은 늘 절에 가서서 기도를 하고 오시곤 하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며 함께 했었다. 그때는 교회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였을 때였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선생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함께 가보고 난 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나와 친구를 데리고 다니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며 즐거운 시간들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회를 섬기는 청년부들을 보고 배우며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부흥회를 통하여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를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새벽예배를 드리고 회사로 가는 믿음 생활로 이어졌다.

결혼하고 3 년 후 어쩌다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이란 곳에 와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을 일터로 보내고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매 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다. 늘 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로 인해 방해가 될까 봐 가지 못하고 있던 중 어느 날, 마음에 너무 가고 싶어 기도 시간에 아들을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갔다. 기도 시간에 아들은 계속 자고 있었고 집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기도로 간구해 왔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더 긴 시간을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목욕탕 같은 좁은 공간에 숨어 숨죽이며 밖을 내다보았다. 예수님은 그대로 나를 향해 바라보시고 계셨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 다시 숨어 버렸다. 조금 후 밖을 다시 보니 옆쪽에 있던 땅에 반은 검은색으로 반은 흰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니 검은색은 잿가루 같았고, 흰색은 구름이 깔려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조금 후 검은색 잿가루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죽음의 길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었다. 그 검은 자들이 사라지고 난 후 흰색 쪽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자세히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빛이 있는 길로 걸어가며 사라졌다. 난 그 모든 것이 무서웠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밖으로 기어나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네 죄를 사하노라” 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 걸어가시며 사라지셨다.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친다,

딸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다. 금요일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었는데 또다시 금요일 저녁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이 시작되어 참다 참다 새벽에 응급실로 찾아갔다.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는 임신으로 인한 물혹 때문이라며, 물혹이 터지면 맹장 터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병원에 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냥 집으로 보냈다. 다시 금요일이 오고 저녁이 되자 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이 심하게 왔지만 의사의 말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오지 말라는 말에 참고 참았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 새벽에 다시 응급실에 갔고, 그곳에서 진통제를 맞고 있을 때 의사가 와 오른쪽 나팔관이 꼬여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수 있었다고..... 나와 남편은 너무 놀랐고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을 위해 가져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다. 그것을 듣고 나는, 수술하기 3 일 전 꿈이 생각났었다. 꿈속에서 보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계시는 것이 보였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아기를 안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 꿈을 통해 의사가 수술할 때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예수님이 아기를 데리고 가시나보다 하고 마음에 염려하며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이 끝나고 비몽사몽인 나에게 의사는 나팔관이 꼬인 사진을 보여 주며 수술이 잘 됐고, 아기도 안전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 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 지켜 주시려고 안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들이 5 살 때였다. 며칠 동안 심하게 아프고 열이 내려 가지도 낫지도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는 아들에게 “누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 하고 물어보았다. 아들은 “어떤 아저씨가 자꾸 오라고 한다고, 자기는 가고 싶지 않는데 데리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들에게 “그 아저씨 따라 가지 말라” 하고 얼른 아들을 안고 남편을 불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방언 기도로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서 사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화면들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보지도 못한 희귀한 마귀의 모습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아픈 것이 조금씩 나아져 이를 정도 있다 회복되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이다.

또, 하루에 한 번 씩 3 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와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치 천둥이 광 치듯 울리며 말씀하셨다. 첫째 날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다고, 둘째 날에는 “**기다리라**”라고, 셋째 날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남편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믿고 기다렸다. 이를 후 기다리던 좋은 결과의 통보가 왔다.

위의 간증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늘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마음에 사모하며, 매일매일 같은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한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속에 쓰임 받기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가족이 드릴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목장 임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22 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첫 일 년을 뜨겁게 사랑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제 50 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십자가 감격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설렘으로 기대를 갖고 제자의 삶 공부에 참여하게 된 후 바로 그 원인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넘치는 기쁨이 없을까? 그건 바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두리몽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성적으로 짓는 생각의 죄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남편이나 자녀들과 share 할 수 없는 것, 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나 생각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임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조건은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리더십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가 절 속상하게 할 때 '에구... 내가 죽어야지... 성격 좋은 내가 참아야지...' 하며 설죽는 시늉을 낸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죽으려고 하지도 말고 참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무겁고 짝짝하게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십일조 생활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슬그머니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삶 공부 과정 중 십일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쓰시는 seed money 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의 생명, 건강, 재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가져 가시기로 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마음대로 가져가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일조 생활을 하기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제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입니다. 최근 한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데요..." 단박에 제안을 거절한 제게 착한 권사님은 "그래요... 알겠습니다."하고 대화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이유는 단지 내가 귀찮다는 생각에서였지 전혀 교회의 덕이나 권사님의 깊은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입술로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권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순종하고 나니 정말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제자의 삶... 그건 지지고 묶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미래의 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편지

어버이날,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 합니다.

제가 힘들어 할 때도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엄마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겁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전지수 올림 

감사편지

오늘은 어머니 날 입니다. 어머니께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을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아름답고 재미 있는 어머니 입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마음은 더 아름
답습니다.

제가 학교생활에 힘들어 하고 지쳐 있을때는 격려
해 주시고 웃겨 주셔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자상하고, 유모가 많습니다.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으로서 모범되고 몸소 실천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 실망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에 어머니 May Lee!

조유미 올림  



스페인 선교 소식

우리 주 예수 그 영광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6 월 24 일부터 시작된 지중해 연안에서 이루어진 무슬림 집중 성경 패키지 보급과 복음 증거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무슬림들의 큰 명절인 희생제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삭의 모리산 이야기를 희미하게 기억하며 희생 제물을 정성껏 잡고 1/3 은 자기 가족이 먹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 이레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임을 모르고 그저 전통을 따라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진리가 희생 제물을 잡는 그들에게 들려져 모두가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령 도시인 멜리야는 모로코와 만나는 국경입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동부 알제리 국경과 모로코 사하라 지역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납니다.

저희 팀은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성경 패키지를 권합니다. 모두들 아랍어 몇 마디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여름 땀별과 높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전달되는 성경 패키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연 이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국경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패키지를 열어 성경과 책들을 읽는 이들을 종종 볼 수있었습니다. 그럴때면 입술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있어 신약성경은 오래전부터 원본과 달라졌다며 금지서적으로 지정되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알헤시라스는 지중해 최대의 항구입니다. 모로코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스페인의 최남단 항구입니다. 지난 4 년 동안 항구 내 경찰들의 제지로 인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받아 갔고 지나는 경찰들도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역중에도 하나님께 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항구가 다시 열려서 마음껏 성경을 전달할 수 있기를....

지난주까지 4 교회의 단기팀과 사역을 했고 2,213 개의 성경 패키지와 스페인어, 아랍어 전도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92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수량은 큰 벤에 가득 실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이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남 사현, 이 현진 선교사 드림

아프리카 케냐 선교 소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1 월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African Divine Church 라고 하는 교단에서 2 박 3 일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교단은 1947 년 Pentecostal Assembly of Canada (PAC) 로 부터 독립해서 지금까지 자생해온 교회이며 산하에 약 1000 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에스겔 목사가 같이 사역했는데 저희는 성경의 중요성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도중에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 했는데 약 100 여 명의 목사들 중에서

파푸아뉴기니 선교 소식

단 한 명의 여자 목사님만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설교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다 조용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서 당연히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이 교단은 특히 아프리카의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라서 외국인을 배척해 왔었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문을 열며 제가 외국인으로서 처음 이 교단의 문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서 "한 손에는 성령, 다른 한 손에는 성경" 이렇게 외치면서 다음 만날 때까지 성경을 한번 읽을 것을 약속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모임을 끝냈습니다.

지난 18 년 동안 선교하면서 케냐 교회를 많이 방문했지만 이러한 토착교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 3 기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도 신학교 나름대로 성장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아프리카 토착교회에 말씀을 소개해 주는 일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주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박 성규, 은경 선교사 드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 선교지에서 날마다 저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목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사역은 인턴 프로그램과 훈련, 빌레몬서 자문위원 점검과 팀 점검 그리고 왕파르 찬송가 96 곡을 프로듀싱하고 녹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주님께서 새로운 왕파르 사역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귀한 일꾼들과 사역의 열매, 그리고 왕파르 교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동역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정 일재, 최 선옥 드림



바나바 캠프



성경

앤드류 목사

제 생각에 바나바 캠프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토록 합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관계

김 사무엘

바나바 캠프는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바나바 캠프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살짝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캠프는 제가 했던 그 어떤 기대 보다도 더 감사할 것이 가득했던 진정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캠퍼들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맺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캠프 내내 개인의 필요를 뒤로 한 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애썼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며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캠프에 한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

김선희

바나바 캠프 곳곳마다 사랑이 피웠습니다. 캠퍼들에게도 봉사자들에게도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이 우리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했습니다!

사랑함

김은성

바나바 캠프의 모든 직원들과 봉사자들 및 캠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할 때에도 캠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더욱이, 제 캠퍼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를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캠프는 단순히 봉사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

김하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놀랍습니다. 바나바 캠프에서 우리는 캠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단지 사랑해야 했습니다. 때때론, 캠퍼들이 말을 안듣고 자기 맘대로 할 때도요.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저희의 모습이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남기쁨

저는 바나바 캠프에 3 번 참여하였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곳에서의 경험은 절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한 캠퍼는 ‘딜론’이라는 11 살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활력이 넘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딜론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등 뒤에 올라타는 것이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딜론이 제 얘기를 듣지 않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하지만 딜론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분에게 등을 돌릴 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딜론과 일주일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고, 그런 제 변화를 보고 딜론 역시 저를 잘 따라주어 너무나 신났고, 서로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 경험

산리아

저는 하나님께서 바나바 캠프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캠프 중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안도하며 캠퍼를 돌보며 어려운 일들을 이겨 냈습니다. 제 캠프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더욱 가까워져 기뻐했습니다. 바나바 캠프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꼈기에, 계속해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반영

장현아

바나바 캠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반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캠퍼들을 위해 봉사할 뿐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내심과 사랑에 대해 더욱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 캠프는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저의 캠퍼와 또 더욱 나아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랑함

조지현

캠퍼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최고의 한 주를 만들어 주기 위해 바나바 캠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오고 가는 이야기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에 제한된 사랑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James Garcia

바나바 캠프를 통한 짧은 여정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날마다 매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캠퍼를 통해 나오는 사뭇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함께 머물던 숙소의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항구상

문나영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캠퍼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신력과 꾸준함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또한 일주일 중 힘들 때에 더욱 강해 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힘 주시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 단련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쁨

한진희

봉사자로서 우리는 개인 캠퍼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캠퍼를 위해 격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모든 행사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모든 과정에 매우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그것을 통해 개개인의 봉사자들이 캠퍼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 캠프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

조영화

올해 캠프 바나바의 경험은 저에게 눈을 열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나'라는 캠퍼와 함께 한 주를 보내며 그녀를 더욱 잘 알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나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그녀가 매우 호의적이며 친절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첫 날을 보내며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요구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로 응답하였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양치질이나 선스크린을 바르는 일에도 말이죠. 저는 참으로 실망하여 매일 매일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나는 여전히 양치질을 거절했지만 그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 속에도 내 판단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다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제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침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나바 캠프를 통해 저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 저 모







편집자의 글

'내 말이 너희 안에' 선교지를 맡아서 하라는 이명수 장로님의 말씀에 부족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를 하고 막상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몰라서 솔직히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편집부장이셨던 김명숙 권사님께서 제 40 주년 선교지를 참고하라고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9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 선교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또 더 나아가서 이 선교지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이 선교지를 위해서 귀한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지를 편집하는 데 시간을 내주시고,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여러 사진들을 모으고, 원고지를 카톡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선교지가 출간하기까지 거의 매주 모여서 수고하신 임현숙 집사님과 한복순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집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선교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집사님의 수고에 하늘의 큰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선교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쁜 인쇄지를 주문해주시고 디자인을 조언해 주신 황진수 목사님, 필요한 사진을 찍고 보내주신 박안나 전도사님, 편집하는데 필요한 포맷과 인쇄하기까지 도와준 최강 형제님과 컴퓨터 작업에 도움을 주신 이명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과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걱정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김명숙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지가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편집부 김경실

섬기는 분들

송병일 목사	담임 목사
오정석 목사	부 목사
Andrew Chun 목사	RCC 목사
황진수 목사	중고등부
박안나 전도사	유초등부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1495 S. University Blvd., Denver, CO 80210

사무실: (303) 777-6566

팩 스: (303) 777-0050

Website: <http://kccdenver.org>

모 임 안 내

주 일 1 부 예 배	7:55am	주 일	본 당
R C C 영 어 예 배	9:30am	주 일	본 당
주 일 2 부 예 배	11:15am	주 일	본 당
금 요 찬 양 예 배	7:30pm	금 요 일	본 당
새 벽 예 배	5:30am	화 ~ 토	본 당
한 국 학 교	9:30am	주 일	교 육 관
유 년 부 / 초 등 부	11:15am	주 일	교 육 관
Youth Group 청소년부	11:15am	주 일	교 육 관
Youth Group Praise Night	7:00pm	금 요 일	교 육 관
A W A N A 클럽	7:00pm	금 요 일	교 육 관
가 정 교 회 (목 장)	Open	토/주일	각 목 장
새 가 족 성경공부	1:30pm	주 일	교 육 관
삶 공 부	7:30pm	화 요 일	교 육 관

발 행 인: 송 병 일

편 집 인: 김 경 실

편 집 위 원: 임 현 속 한 복 순